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17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메밀’ 통합브랜드 활성화… 소비자 인지도 조사·발표-9면(24.1.8.)	농산물원종장	한국영농신문
○	2023 제주감귤박람회 경제 파급효과 155억원-9면(24.1.8.)	제주감귤박람회	한국영농신문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4면(한영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5면(한영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신문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4면(한영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5면(한영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농산물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송비 지원 확대-3면	-	제주일보
○	작년 펄펄 끓은 제주… 역대 두 번째로 더워-5면	-	제주일보
○	위기의 농업… 돌과구 찾기 모색-2면	-	한라일보

(한국영농신문: 2024년 1월 8일)

○ ‘제주메밀’ 통합브랜드 활성화… 소비자 인지도 조사·발표-9면

‘제주메밀’ 통합브랜드 활성화… 소비자 인지도 조사·발표

도내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 관광·특산품 개발에 효과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지역특화작목 메밀의 통합브랜드 ‘제주메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메밀 재배면적은 1,665ha(전국의 2,259ha의 73.7%), 생산량은 1,264톤(전국 1,982톤의 63.8%)이다. 전국 1위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제주 통합브랜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원은 입도 관광객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메밀’ 통합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62.6%로 1위였으며, 제주는 28.0%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다양한 메밀음식과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관련 축제 홍보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주지역 메밀 재배 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 37.0%, 모른다 63.0%로 제주 메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메밀하면 연상되는 것은 음식(41.6%), 메밀꽃(38.1%), 축제(12.8%)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은 차별화된 새로운 음식이나 특산품이 적고, 관광과 연계한 메밀꽃 및 축제 시기의 한계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제주 메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주메밀’ 통합브랜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주메밀 이미지가 개선되고 홍보 효과가 높아지면 소비자와 관광객의 신뢰도 향상,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산품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의견이 많았다.

‘제주메밀’ 통합브랜드를 활용해 메밀꽃 및 축제 시기에 맞춘 관광상품과 메밀음식, 특산품 등을 개발해 홍보하면 소비자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농업기술원 강태완 작물종자연구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메밀’ 통합브랜드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제주산 메밀의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8. **한국영농신문 9**

(한국영농신문: 2024년 1월 8일)

○ 2023 제주감귤박람회 경제 파급효과 155억 원-9면

2023 제주감귤박람회 경제 파급효과 155억 원

매출 실적·만족도·경제적 파급효과 등 목표 초과 달성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된 ‘2023 제주감귤박람회’가 15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에 의한 경제효과 38억 원, 도외 관광객에 의한 경제효과 117억 원으로 관광객 유입이 감귤박람회 성공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기)는 지난 12월 27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23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결과 및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이규민 교수팀

이 수행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주감귤박람회의 총 방문객은 6만 2,344명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이중 제주도민은 59%, 외지인은 41%로 집계됐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1만 7,616원으로 분석됐다.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참가자도 130만 명을 넘어서다.

농기계, 산업전시 등에 참여한 160여 개 기업의 계약 및 매출액도 33억 원에 이르러 전년 실적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프로그램 운영, 재방문 의사, 입장료 및 셔틀버스 운영 등 관람객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도 85.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행사의 성과목표를 모두 초과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2023 제주감귤박람회는 ‘감귤로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고, 감귤 기반의 전후방 산업을 확장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감귤산업의 유무형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더 젊어지고 더 풍성해진 박람회를 위해 ‘온누리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 박람회장을 테마파크처럼 조성하고, ESG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좋은 추억을 제공했다.

고병기 조직위원장은 “2023 제주감귤박람회는 도민의 성원 속에 감귤 성출하기에 열려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아지고 관람객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내년 국제박람회에서는 제주감귤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 및 1.8. **한국영농신문 9**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7일)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4면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

겨울철 제주 곳곳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감귤. 노지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잠시간의 농한기가 지나면 올해 감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감귤나무 정지·전정 작업이 진행된다.

그런데 매년 정지·전정 작업 시기인 3~4월이면 어김없이 농작업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최근에는 전동가위, 기계톱의 사용이 늘어나며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 간 정지·전정기간 중 46건의 목재 파쇄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2건은 사망에 이르렀다.

농작업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예방'이다. 누구나 아는 해답이지만 '이 정도는 관찮을 거야'라는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정지·전정 작업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한영규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첫째, 전동가위를 사용할 때 가위를 잡은 반대 손은 절단위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두거나 톱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둘째, 기계톱 사용 전 시운전으로 이상 유

무를 확인하고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 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한 손으로만 작업하지 않는다. 셋째, 목재 파쇄기 작업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서의 상·하차 시 주의를 기울이며 목재 길이가 짧으면 보조막대를 사용해 투입구로 밀어 넣는다. 특히 파쇄기 회전부에 장갑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손에 맞는 장갑과 작업용 토시를 착용해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한다.

1.17.
뉴제주일보 14

(제주신문: 2024년 1월 17일)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5면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



한 영 규
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기센터

노지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잠시간의 농한기가 지나면 올해 감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감귤나무 정지·전정 작업이 진행된다. 정지·전정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과실 품질을 높이며, 해거리 폭을 줄이는 등 감귤 재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농작업이다.

하지만 매년 정지·전정 작업 시기인 3~4월이면 농작업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정지·전정 작업은 가위나 톱처럼 날카로운 농기구를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목재 파쇄기를 이용한다. 최근엔 전동가위, 기계톱의 사용이 늘어나며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농작업 시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매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작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예방'이다. 누구나 아는 해답이지만 '이 정

도는 관찮을 거야'라는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정지·전정 작업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전동가위를 사용할 때 가위를 잡은 반대손은 절단 위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두거나 톱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둘째, 기계톱 사용 전 시운전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목재 파쇄기 작업 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상·하차 시 주의를 기울이며 목재 길이가 짧으면 보조막대를 사용해 투입구로 밀어 넣는다. 특히, 파쇄기 회전부에 장갑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손에 맞는 장갑과 작업용 토시를 착용해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12.17.이상이 함께 작업한다. 제주신문 15

(제주일보: 2024년 1월 17일)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하세요-14면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하세요



나의 의견

한 영 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겨울철 제주 곳곳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감귤. 노지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농한기가 지나면 올해 감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지·전정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이 진행되는 3~4월이면 어김없이 농작업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가위나 톱처럼 날카로운 농기구와 목재 파쇄기가 이용되면서 위험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지·전정기간 중 46건의 목재 파쇄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2건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분명 농작업 시 위험성을 인식하지만 '이 정도는 관찮을 거야'라는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 숙지로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첫째, 전동가위를 사용할 때는 가위를 잡은 반대손이 절단 위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둔다.

둘째, 기계톱 사용 전, 시운전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자는 2명 이상 동시에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 시 엔진을 끄고, 한 손으로는 작업하지 않는다.

셋째, 목재 파쇄기 작업 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서 상·하차 시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파쇄기 회전부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손에 맞는 장갑을 낀다. 또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한다.

이렇듯 제주 농업인 모두가 안전한 농작업으로 '안농'하기를 바란다.

1.17.

제주일보 14

(한라일보: 2024년 1월 17일)

○ [기고]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15면

갑진년, 모두 안전한 농업 하세요



한 영 규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겨울철 제주 곳곳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감귤. 노지 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잠시간의 농한기가 지나면 올해 감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감귤나무 정지·전정 작업이 진행된다. 정지·전정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과실 품질을 높이며, 해거리 폭을 줄이는 등 감귤 재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농작업 중 하나다.

하지만 매년 정지·전정 작업 시기인 3~4월이면 어김없이 농작업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정지·전정 작업은 가위나 톱처럼 날카로운 농

기구를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목재 파쇄기를 이용한다. 최근엔 전동 가위, 기계톱의 사용이 늘어나며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정지·전정 기간 중 46건의 목재 파쇄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2건은 사망에 이르렀다.

농업은 업무상 사망·사고율 기준 세계 3대 위험 산업 중 하나로 근로자의 재해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농작업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농업인이 자신의 안전보다 농산물 재배·생산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하며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안전한 농작업을 했으면 한다. **한라일보 1.17. 15**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7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

▲만감류
△최대한 자연온도 유지, 야간온도
0도 이하 예보 시 축창 닫기-열풍기가
있는 경우 최저온도 2도 내외로 설정
△정기적인 품질조사 후 관수량 조절
▲노지감귤
△수확 완료 과원은 기온 10도 이상

따뜻한 날 엽면시비-요소 0.2~0.3%
액 7~10일 간격으로 2~3회
▲양채류
△도둑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
나방 및 노균병 방제
▲당근
△다습한 날 아침이슬 발생 시 검은

앞마름병, 점무늬병 발생 주의

▲월동무
△월동 후 수확 예정인 포장은 습해
관리에 유의
▲구마늘
△1~2월 흑색썩음균핵병 주 발병
시기로 예찰 방제 필요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
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 17.

뉴제주일보 13

(제주일보: 2024년 1월 17일)

○ 농산물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송비 지원 확대-3면

농산물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송비 지원 확대

道, 올해 용인·칠곡·영암 센터 이용에 37억 지원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농산물을 육지 주요 소비지로 배송하는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송비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농산물 통합물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육지부 3개 거점물류센터(경기 용인, 경북 칠곡, 전남 영암) 이용에 국비 포함 37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는 도내 농산물 도외 출하 시 해상 운송 단계를 거쳐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2022년 순수 지방비로 '도서지역 내륙 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17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통합물류 시행 이전에는 도내 농산물이 육지부 도매시장 경매 후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조여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농산물 출하가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물류를 통해 산지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고, 전국 분산 출하를 유도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9억원 규모로 3개 내륙거점물류센터를 선정하고, 센터에서 소비지까지 가는 운송비의 90%를 지원했다. 총 사업 물량은 1만5000t으로, 전년(6000t)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 농산물이다.

제주도는 농산물 판매(경락)가 격 정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미리 지원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통합물류를 이용해 제주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도 2022년 320여 개에서 지난해 630여 개로 크게 늘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과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최적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유한 기자

제주일보 3

(제주일보: 2024년 1월 17일)

○ 작년 펄펄 끓은 제주... 역대 두 번째로 더워-5면

작년 펄펄 끓은 제주...역대 두번째로 더워

연평균기온 17.1도·1위는 2021년 17.2도...남풍 자주 유입돼 고온 현상

지난해 제주지역이 기상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3년 제주도 연 기후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연 평균기온은 17.1도로 평년(16.1도)보다 1도 높은 역대 2위의 기록이며 역대 1위인 2021년 17.2도와도 0.1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12달 중 1월과 11월을 제외한 나머지 10달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9월의 경우 월 평균기온이 25.3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

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이처럼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요지점별 연 평균기온은 제주시(북부) 17.5도로, 성산(동부) 16.7도로 각각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서귀포(남부) 17.7도, 고산(서부) 16.6도로 각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또 여름철 제주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바람이 자주 불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 폭염일수가 22일로 역대 4위, 열대야 일수는 50일로 역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연 강수량은 1791.2mm로 평년(1676.2mm)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강수량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월에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많은 수증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 달간 408.1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5월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반면 3월과 10월에는 각각 49.6mm와 21.1mm의 비가 내리는데 그쳤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6.2일)보다 2.8일 많은 9일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북동부 지방의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고온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던 한 해로 기후위기를 또 한번 실감했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한라일보: 2024년 1월 17일)

○ 위기의 농업… 돌파구 찾기 모색-2면

위기의 농업… 돌파구 찾기 모색

제주 농업인구 비중 12.7%→10.8% 줄고 고령농 심화
스마트농업 필요성 커져… 도, 5개년 육성계획 수립

고령농 심화 등으로 제주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개년 단위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자동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경영을 지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요 작물생산량은 매년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채소류와 감귤류 생산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제주지역 전체 농가 대비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을 보면 시설농가가 전체면적 225.0ha 중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은 108.3ha로 42.5

%를 차지했고, 과수분야(감귤)는 전체 3536ha 중 68.1ha(1.9%)가 스마트농업을 보급받았다.

특히 제주농업 현황을 보면 농업인구는 줄고 고령농이 심화되면서 제주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 농업현황을 보면 도내 인구 중 농업인구 비중은 2017년 12.7%에서 2021년 10.8%로 감소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55~64세가 전체 29.5%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농으로 분류되는 39세 미만 농업인은 3.9%로 고령농이 심화되면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14일부터 한달간 제주지역 농업 경영체와 스마트농업 영농인 12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농업인 10명 중 4명이 스마트농업을 알고 있고, 도입할 의향은 63.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추후 도입할 의향으로 영농편리성이 61.6%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45.4%가 유지비용 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통해 스마트팜 전문인력 300명 육성, 스마트농업 농가 육성 및 기술 보급 200호 육성,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 전체 농업의 5% 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전략·과제는 첨단기술 실용화·스마트농업 확대, 전문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연구·기술보급 확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작물별 생육환경 데이터 기반 및 최적 생산관리모델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전문교육·임대를 통한 안정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17
한라일보 2